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령이 똥!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킨텍스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운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정유라가 열쇠 쥐었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탄핵이 없었다면 오늘이 대선 D-1년이 됐을 겁니다. 시계는 한층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스캔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정유라입니다. 정유라로 시작됐고, 결국 정유라로 매듭짓게 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유라는 정윤회의 딸이 아닌 듯 보입니다. 정윤회 아버지가 최순실이 데리고 온 아이라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방증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친구들은 최순실이 임신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긴 자기 엄마인 최순실에게 "대학도 못 나온 게"라며 모욕을 줬다고 하니, 싸가지가 빈곤한 정도를 이미 넘어섭니다.

그런 정유라는 우격다짐으로 승마 국가대표로 발탁돼 역시 우격다짐으로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명문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합니다. 국내 1등 기업 삼성으로부터 220억을 받기로도 돼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런 정유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이 될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후견인들이 어쩌면 경쟁후보가 될지 모를 박태환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유라는 서른 살 넘어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되고 그 길을 따라 대선에도 도전한다는 추측이 여의도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지요?

정유라는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 터무니없는 특혜를 독점하느냐. 그리고 특혜가 가능하도록 부추긴 배후의 그림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걸 규명하는 것은 이미 남의 사생활 즉 가족사를 들추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고등학교 특혜 수료가 적발돼 중졸이 됐고, 끈 떨어진 국제 미아로 전락할 상황이지만 반드시 불러 추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 정유라부터 불러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해 박근혜 게이트 최정점에 있는 그녀에게 진실을 토해내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 그녀도 자살을 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19일(월) 1부 | [특집] 주진우 '박근혜 5촌 살해' 관련 인터뷰

[오프닝] 조속히 잡아 추궁 안 하면 정유라 '자살 당할 수'도
[인터뷰] 주진우 기자 '박근혜 5촌 살해' 관련 인터뷰
-"엉터리 수사했던 경찰들 승진에 새누리당 공천까지 받아"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최순실 비리와 나를 엮는 것은 연좌제" 박근혜의 헛소리
-"'18원' 이완영,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하라 교사했다"
-삼성, 220억 갖다주면서도 최순실 앞에 벌벌…뇌물죄 확인
[뉴스듣기능력평가] '살인교사범'은 '살인범'과 같은 형량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트럼프, 노골적인 중국 적대 표면화…"저러다 충돌하면"
-트럼프 당선 위한 러시아 공작, 오바마 "알고 있었다"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경제까지 내가 챙기겠다"는 황교안, 챙길 능력은 되나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간 경쟁 그리고 사슴사냥 게임
[공화국 논평] 강소라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 조치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서울신문 '그알'로 힘받은 신동욱 재심키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박근혜의 제부 신동욱 씨가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욱 씨는 지난 2007년 박근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지만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는 글을 써서 박근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근혜의 5촌 조카 박용철씨는 박지만 측에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다음 살해당했다. 어떤 증언이었을까? 당시 박용철씨는 박지만에게 불리할 녹취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캐나다에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또한 신동욱씨 측 변호사에게는 "우리 고모, 즉 박근혜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 서울신문 이 기사 말고는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탄핵에 대처하는 자세

한겨레 朴 "최순실 비리와 엮는 건 연좌제"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기가 막히다. 현정권이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부'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순실과의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박근혜가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연좌제는 친족 끼리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이 1%라도 탄핵감

대통령 박근혜 측이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인데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몰아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경희대 정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급이 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1%밖에 안 됐다 했는데, "이것 역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이라면 탄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민·브·리·핑·이·완·배·기·자·의·경·제·의·속·살
12월 29일 13시 전주 갈보리교회 19시 광주YMCA
사전예약 https://goo.gl/YiDLmd

경향신문 뉴라이트도 비토하는 황교안 대행

MB 때 법제처장을 지냈고 뉴라이트인 이석연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헌법이 부여한 황교안의 역할은 국가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지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게 아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연히 재판권 전원 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봤다.

위증교사 논란

중앙일보 이완영, '청문회 위증' 모의 정황

고영태씨는 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13일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충전기를 빌미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고영태 소유라는 취지로 질의응답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예고한대로 지난 15일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런 취지의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아닌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씨가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매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청문회 출석 전에 새누리당 모 의원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중앙일보의 취재결과 그 인물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JTBC 태블릿PC 절도로 하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정동춘 재단 이사장-박헌영 과장으로 이어지는 '진술 입 맞추기' 의혹을 주장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불러 최순실 태블릿 PC는 JTBC가 절도한 것으로 밝히라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동춘 이사장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정동춘 이사장은 노승일 부장에게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만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안종범, 치졸한 증거인멸 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검찰 조사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달 시기는 10월 22일로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에 소환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의 전달 목적을 청와대와 말을 맞추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건에는 곤란한 질문에는 "기억 못함" "잘 모름" 등으로 답변하라고 적혀 있다. 총체적 증거인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1%가 이정도

한국일보 "삼성, 최순실 앞에서 벌벌 기어"

최순실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과 맺은 220억원대 계약을 맺었지? 돈을 준 쪽은 삼성인데 벌벌 긴 쪽도 삼성이라면 삼성이 지금 거래나 투자가 아니라 상납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이야기해 '대가성 금전거래'였다는 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로부터 이 같은 진술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쯤 되면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김종, 어머니회장 덕에 차관 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종이 최순실의 몸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김종과 최순실을 연결시켜준 인물은 정유라가 다니던 경복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이었던 순천향대 교수 하정희로 알려졌다. 대학 교수이던 김종은 이들의 연줄을 잡고 등용된 이후 최씨 일가의 각종 사익 추구를 도왔다.

그리고 하정희 씨는 순천향대 교수가 된다. 특혜 없이 교수가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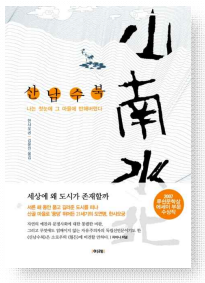
오늘의 칼럼

한국일보 "탄핵 '위기', 전화위복 '기회'로"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한국일보 칼럼 "탄핵 '위기'를 전화위복 '기회'로"입니다.

"아무래도 위기의 큰 책임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당정은 책임도 다짐도 진솔하게 고백한 적이 없다. "봉건시대의 주군에 대한 성과 신의"로 얽힌 친박계는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라고 비판받았다. 진정한 봉건적 관계라면 "주군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당하고 주군이 욕을 당하면 하는 죽는다(主憂臣辱 主辱臣死)"는 말처럼, 죽음으로 실정의 책임을 대신 져야 했다. 그러나 주군이 탄핵당한 지금 각기 도생(圖生)만 시도한다. 이제 당정은 봉건적 '군신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드는 진정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함께 탄핵받은 정부도 전면개각을 단행하든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각료를 교체하는 영단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에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탄핵'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게이트'로 훼손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 경제위기 국제관계 등도 다잡아야 한다. 어느 한 정권의 문제일 수 없다. 촛불민심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강렬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부응하여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치유로, 분노와 분열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보수적 가치는 진보적 지향과 조화를 이뤄 실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럴 때 탄핵 위기는 나라를 더욱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참 이렇게 가지런하고 품격 있는 칼럼이 또 있을까요? 문장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늘·을·읽·는·책

산남수북 山南水北

한샤오궁 지음 | 김윤진 옮김 | 이레 | 2009년 6월 30일 출간

동정호 부근 무봉산 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 팔계에서 보낸 한샤오궁의 7년간의 기록 『산남수북』. 분주한 거리, 사건 사고, 고층빌딩에 짓눌린 우리는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간다. 한샤오궁은 점점 낯설게만 변하는 도시를 떠나 산골마을로 옮겨간 자신의 일상을 그만의 독특한 문체로 풀어낸다. 각종 문학상을 휩쓸며 중국 최고의 작가로 자리 잡은 한샤오궁이 전하는 문명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펼쳐진다.